

# 조선 목화 재배 사업에 관한 고찰과 정당 정치가

운노 다이치 (리쓰메이칸대학)

## 1. 본 보고의 배경

### 1.1 도입

러일전쟁 전후 일본에게 조선은 면포 주요 수출국이었다. 이는 청일전쟁 이후 면포를 수출하고 쌀이나 대두를 수입하는 무역체제 이른바, '면미교환체제(綿米交換体制)'가 확립되었다.(가미무라 1975) 이에 본 연구에서 면화 재배 사업을 주제로 삼게 된 계기는 청일전쟁이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청일전쟁은 조선 통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로 인해 일어났다. 이에 전황이 호전되자 일본은 점령지로 삼은 조선 각지에 상업적으로 진출하고 나아가 전쟁 이후 조선 통치까지 감안하여 산업장려정책을 활발히 전개했다.

당시 관료, 정당, 사업가들이 주목한 것이 조선 내 목화 재배업이었다. 일본 근대화의 중심이었던 방직업은 인도면, 미국 육지면을 원료로 사용했다. 그러나 육지면은 기후 면에서 볼 때 일본에서 생산이 어렵고 대부분을 인도나 미국 등 수입에 의존했다. 이에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조선면화재배협회(이하 면화협회)를 설립하여 거국일치의 비영리사업을 실행했다.

### 1.2 선행연구

면화협회는 일본의 통치 이후의 면화 생산 정책의 전사이며 광복 이후 면공업 발전과의 관계성, 혹은 식민지 수탈 구조에 대한 조선 면화 농민의 경제적 대응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근대적 면공업의 식민지화 단서로 자리매김하였다. (曹晟源1993、權赫泰1998). 특히 權赫泰는 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면화협회가 정당, 관료, 사업가의 공동사업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면화재배협회 창립취지서'를 인용해 협회 설립의 의의를 지적했다.

또한 최근 나가노 신이치로가 육지면 도입과 장려를 주도한 목포 영사 와카마쓰 도사부부가 재평가되고 있다. 와카마쓰가 한일의 '공익 사상' 실현을 의도했다고 강조하며 근대화 기여를 크게 평가하는 것이다. (나가노 2017)

그러나 일본 연구자들이 근대화 기여 면을 강조하게 되면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의미가 내포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에 실증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면화협회의 구체적인 설치 경위까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 특히 원동력이었던 정당 측의 검토가 결여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점을 염두해두자면 면화재배사업과 조선통치간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정당 측의 동향 파악을 통한 면화협회의 기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2. 면화재배협회의 설립배경

### 2.1 사업목적

면화협회의 주요 사업은 조선 우량종을 선정하여 특히 방적 원료인 미국종=육지면 재배를 장려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은 ①세력권(제국)내 자급 시도 ②인도면 등 시장가 상승에 대비해 선택지를 확보하여 면화 시세를 유지하고자 함이었다. 이를 통해 수입 면화에 의존해 왔던 일본 면공업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본위화폐의 유출을 개선하고자 한 것은 정당, 관료, 재계가 각각 요청한 것이며, 이로 정재계 일치화가 이루어졌다.

### 2.2 설치과정

예당초 면화협회가 설립된 계기는 1904년 면화생산지인 목포 주재 영사였던 와카마쓰 도사부로가 미국산 육지면을 실험적으로 재배하면서 시작되었다. (權赫泰 1998, 나가노2017) 와카마쓰는 그해 11월 시제품의 경과 상태를 보고하면서 장래성을 일본농상무성과 업체단체인 대일본방적연합회(이하 방연)에 전했다. 그러나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관료와 방적업자는 실현성이 결여된 실시 요청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1905년 1월 15일 농상무 장관을 초청한 오사카의 방적업자는 '한국 청나라 양국 면화재배 및 조사'를 요청했다.<sup>1</sup>

그러한 가운데 정당이 원동력으로 역할 했다. 정우회(政友會)내 임시 설치된 수출장려조사회에서 같은 해 1월 31일과 2월 3일에 농상무성 관료 및 방연 대표<sup>2</sup>와 정당조사위원의 의견교환회가 개최되었다.<sup>3</sup> 당시 참가한 조사위원은 방적업과 관계가 깊은 정당 정치가인 노다 우타로와 오기노 요시조였다.<sup>4</sup> 조사회는 주로 수출에 대해 논의되었으나 관료 및 연방측으로부터 조선 면화 재배에 대한 제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05년 4월 노다와 오기노, 자유당 시대에 방적업조사에 관여했던 이노우에 진타로

---

<sup>1</sup> '오사카신보' 1905년 1월 17일

<sup>2</sup> 방적업자인 코다이보 요시조 ;후쿠시마 방직사장, 협회 설치 방연 상경위원, 평의원), 다나카 이치타로(일본면화사장, 오사카상공회의소 부회장, 추후 협회 발전적 해소처 = 조선 면업주식회사 이사)

<sup>3</sup> '노다일기' 1905년 1월 31일 2월 일(후쿠시카현립 규슈 역사자료관 소장)

<sup>4</sup> 노다 우타로는 일본 유수의 재벌이며 면화 수입의 중심 상사를 보유하는 미쓰이 재벌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미쓰이와의 관계로 인하여 노다는 유력 정치가가 되었고 특히 정부와 정당의 연락망 역할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오기노 요시조는 메이지방적회사를 일으키고 교토와 오사카 방적회사의 중역을 맡은 이후 중의원 의원이 되었다.

의 제언으로 인하여 정당 측이 협회 설치를 도모했기 때문이다.<sup>5</sup>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다 등이 정우회의 지도자인 하라 타카시를 관여하게 하고, 나아가 하라를 통해 또 다른 유력정당인 헌정본당에 협력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두 유력 정당의 최고관계자를 거느리고 양당의 국회의원이 실행부가 되어 면화협회 조직구조가 확립되었다. 설치에 힘쓴 노다의 일기에는 “한국의 면화협회 성립, 소생 발의”가 기재되어 있다.<sup>6</sup>

또한 노다 등은 국회의원 활동으로 다망하여 협회 일에 전담으로 할 수 없어 정당 관계자가 협회 주임으로 목포에 현지 관리자로서 인선했다. 이 역할을 맡은 인사가 자유당 이래로 유명했던 소우시(=폭력을 마다하지 않으며 정치가의 옹호, 선거, 정치활동에 종사하는 정당원을 의미) 이었다.<sup>7</sup> 우라가미 카쿠라는 사람이며 우라가미는 협회 사무도 겸하면서 조선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협회가 발전한 이후에도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해당 사업의 중요한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의 명암 양부분이 면화사업이 반영되어 사업의 추진 원동력이 되었다.

### 3. 협회운영 및 정당 정치가—조선 통치 연결고리

#### 3.1 한국을 건너간 정당 정치가들의 자금 원조 요청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그리고 협회 이사를 통한 정당 주도의 조선 통치와의 연결고리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협회 발족과 동시에 재배지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모을지가 문제되었다. 일본농상무성은 자금지출이 곤란한 상태였고, 기술감독 및 지원을 통한 협력에 그쳤다. 이에 일본농상무성의 요청사항을 접수한 방언이 보조금으로 12,000엔을 지출하였다.<sup>8</sup> 그러나 여전히 자금 부족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에 정당정치가는 대한제국(이하 한국) 대신과 변협 등 정부 고위관계자의 관여를 도모했다. 9월경 협회간부간에 ‘한국인 회원 등록의 건’이 결의되었다.<sup>9</sup>

그리고 1905년 10월 면화 시제품의 결과를 시찰하기 위하여 협회 이사인 오기노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다. 오기노는 일본에 있는 노다에게 조선에서 재배되는 미국 육지면의 우위성

---

<sup>5</sup> 하라 케이이치로 편(1965) '원경일기'(후쿠무라 출판) 1905년 3월 28일

<sup>6</sup> '노다 일기' 1905년 4월 12일. 발회식 당일 일기란에 기입된 것.

<sup>7</sup> '(1905년) 9월 15일자 노다 우타로 앞, 오기노 요시쿠라 서간' (후쿠오카현립 규슈 역사자료관 소장)

<sup>8</sup> 농상무성 상공국장 모리타 시게요시로부터 방언 앞으로 자금 요청의 서한이 있었다고 한다. 이이지마 만지 '일본방적사'(창원사, 1949년) 158. '대일본 방적연합회 월보' 153, 1905년 5월. 및 이하 '월보'로 함.

<sup>9</sup> '(1905년) 10월 12일자 노다 우타로 앞 오기노 요시쿠라 서한' (후쿠오카현립 규슈역사자료관 소장)

을 전달했다.<sup>10</sup> 이리하여 미국 육지면의 대규모 재배가 확정되었다. 다만 오기노 일행의 대한 방문 목적은 시찰만이 아니었다. 첫번째 목적은 오기노라 모리이치 대리공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협력방안을 교섭하는 것. 두번째 목적은 면화사업의 장애가 되는 한국내의 반일 감정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오기노 일행은 한국 고위관계자와 각 신문사 이외 유명인에게 면화 재배의 이익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장려를 권유했다.<sup>11</sup> 또한 사무 담당인 우라가미 가쿠는 언론을 맡았다. 여기서 우라가미는 반일색이 강한 '황성신문'에 면화사업이 한국 국민에게도 유익하다는 점을 주장했다.<sup>12</sup> 이처럼 한국 민중과 고위관계자 양방향에 접근했다.

오기노는 10월 12일 노다에게 '재한 일본 민관과 한국 민관 둘 다 상당히 환영'한다며 현재 교섭중이다라는 편지를 보냈다.<sup>13</sup> 그 결과 한국정부의 정재고문 메가타 다네타로우의 동의와 후원을 받아 10월 21일 재배사업 전면 협력 및 10만엔 상당의 자금원조가 협정되었다.<sup>14</sup> 한국 정부의 각 정부처 장관과 변협, 일본에서 파견된 재정고문 등으로 협회의원이 구성되었다. 이 협정에 대해 정치역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가는 한국 정부 측의 자료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면화협회는 조선통치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정의할 수 있다.

### 3.2 협정 이후의 경과

10월 28일 이사회에서 일본 언론에 사업 보고를 실시하고 다음달에는 하라 다카시와 오오 이시 마사미 두 정당의 유력자와의 의견교환 및 협회의 장래 방침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결정했다.<sup>15</sup> 러일전쟁 이후 국내 여론 지지와 두 정당과의 관계를 협회가 중요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1906년 1월 이사회에서는 한국정부 고위급과 통감 고위급의 평의원 후보 등록이 통보된다. 3월에는 한국 정부를 통해 협회에 면화재배사업의 위탁명령이 교부되고 같은 해 4월 정식으로 평의원에 추가되었다.<sup>16</sup>

---

<sup>10</sup> '(1905년 10월 12일자 노다 우타로 앞 오기노 요시쿠라 서한' (후쿠오카현립 규슈역사자료관 소장)

<sup>11</sup> '월보' 159 (1905년 11월) '목화재배협회 제1회 보고' (1906년 3월)

<sup>12</sup> 우라가미 가쿠 '(기고) 면화재배협회이사' '황성신문' 1905년 10월 18일

<sup>13</sup> '(1905년) 10월 12일자 노다 우타로 앞 오기노 요시쿠라 서한' (후쿠오카현립 규슈역사자료관 소장)

<sup>14</sup> '면화재배승인 (경성전보 21일 오후 특과원 발)' ('독판' 1905년 10월 22일)

<sup>15</sup> '(1905년) 10월 29일자 노다 우타로 앞 오기노 요시쿠라 서한' (후쿠오카현립 규슈역사자료관 소장)

<sup>16</sup> '월보' 161 (1906년 1월), 164(1906년 5월), '면화재배협회 제1회 보고' (1906년 3월)

한편, 일본농상무성(농사시험장장)도 한국내 육지면 재배사업을 면화협회에 위임하고 종자를 제공했다. 그 이후, 면화협회는 5월에 목포출장소를 설립하고 종자원의 경영감독을 실시하며 통감부 권업 모범장(4월 수원, 6월 목포출장소)이 해당 감독 업무를 실시했다.

나아가 1906년 4월에는 오기노 일행의 협회이사가 다시 한국을 찾아, 5월 19일 경성에서 성명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협회를 설치한 첫해에는 한국의 오해로 인하여 재배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고위급을 협회 임원으로 지정하고 정부 오해를 풀어낸 결과 금년도의 사업은 순조롭다며 조선통치와의 연결성에 성공했음을 어필하는 것이었다.

이후 조선통치와의 연결고리, 농상무성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정우회와 밀접한 사이였던 이토 히로부미 통감과 쓰루하라 사다키치 총무장관 체제가 되자 협회활동은 보다 수월해진 것을 보아 일본의 조선 통치 시대까지 조선 면화 재배 장려 사업을 주도해왔다.

#### 4. 총평 및 전망

면화사업을 받쳐온 정재 관계는 정당 정치가(정)가 주도하는 면화협회가 사업자금 융통을 전담하고 농상무성(관)의 기술지도 및 감독, 대일본방적연합회(재)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형태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조선 통치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를 돌아보아도 희소한 정재의 거국일치 사업의 성공사례이다.

그 중에서도 정당(정치가)은 이중정당이 양축이 되어 협회 이사를 주도했다. 특히 면화협회의 조선 통치와의 연결고리는 외교관뿐만 아니라 일본과 조선 여론 및 정재계와 협회를 잇는 정당의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선 면화재배 사업의 기원은 조선 면목업 역사와 일본 정당 및 정치사가 교차되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 1. 참고문헌

- 曹晟源 (1993) 『植民地期朝鮮棉作綿業の展開構造』 東京大学博士論文
- 權赫泰 (1998) 『日本纖維産業の海外進出と植民地——日本と植民地朝鮮の絹業・綿業を中心にして』 一橋大学博士論文
- 永野慎一郎 (2017) 『明治期外交官・若松兎三郎の生涯——日韓をつなぐ「白い華」綿と塩』 明石書店
- 村上勝彦 (1975) 「植民地」(大石嘉一郎編著『日本産業革命の研究 下』東京大学出版会)